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MEMORY WATCHER
가제 : 기억 추적자
저자 : Minka Kent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분량 : 428 페이지
장르 : 소설/ 미스터리 스릴러

*** 「월 스트리트 저널」, 아마존 킨들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2017*년의 『걸 온 더 트레인』이 될 책." – 북 리뷰 블로그 *'The Riveted Reader'*의 독자 로미**

오텀이 벤 고틀립이라는 남자의 출생지부터 학력, 직업, 취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불과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가 소셜미디어 '인스타페이스'에 올리는 기사나 좋은 글귀, 그리고 여러 도시를 찾아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고 받은 메달 사진, 즐겨 찾는 음식점은 벤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근거였다. 오텀에게 이보다 중요한 건 벤의 여자 취향이었다. 매력을 느끼는 머리 색깔부터 옷차림, 성격까지, 오텀은 벤이 업로드한 사진과 말들을 철저한 분석하여 모두 알아냈다. 그리고 2주에 걸쳐 바로 그런 여자로 변신했다. 짙은 갈색 머리는 제니퍼 애니스톤과 같은 약간 짙고 흐린 금발로 염색하고, 귀엽고 편안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수수한 화장을 하고 책벌레 스타일로 안경도 하나 맞췄다. 작전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됐다. 벤은 오텀과 데이트를 시작한 지 8주 만에 사랑고백을 하며,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 오텀이 원한 것, 최종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오텀이 벤을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집이 맥멀렌 부부가 사는 집 바로 뒤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맥멀렌 부부의 집에는 오텀의 딸이 살고 있다.

열다섯 살에 계획 없이 아이를 낳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야 했던 오텀은 그 엄청난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직업도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편이 훨씬 더 좋다는 건 알지만 마음까지 떠나 보낼 순 없었다. 그렇게 아이와 헤어지고 3년 뒤, 오텀은 '인스타페이스'에서 마침내 딸을 입양한 사람을 찾아냈다. 다프네 맥멀린과 그레이엄 맥멀린 부부의 첫째 딸 그레이스가 된 오텀의 딸은 늘 그려왔던 대로, 늘 바라던 대로 더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오텀이 하루하루 날짜까지 세어가며 눈물과 후회, 고통 속에 보낸 1000일이 넘는 날들은 바로 그 날, 인스타페이스에서 그레이스의 사진을 발견한 날 모두 한 방에 날아갔다. 다프네 맥멀린은 가족과 자신의 일상을 사진에 담아 업로드하는 일을 아주 즐기는 타입이라, 오텀은 그레이스가 자신과 헤어져 처음 그 집의 식구가 된 날부터 멋진 초콜릿 케이크에 꽂힌 초 세 개를 '후' 하고 부는 사랑스러운 얼굴까지 그간 아이가 자라온 모든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렇게 오텀은 다프네 맥멀린의 비공식적인, 그러나 가장 열렬한 팔로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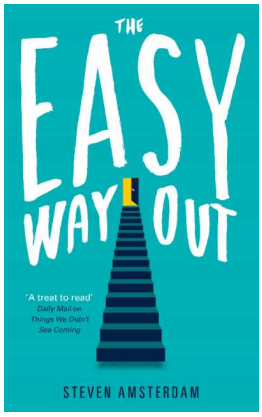
그레이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다프네의 사진으로 지켜보기 시작한 이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레이스를 더 가까이에서 직접 보기 위해 벤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지도 2년이 흐른 어느 날, 오텀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과 마주한다. 다프네가 인스타페이스 계정을 없앤 것이다. 전혀 그런 기미도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진과 글들이 싹 사라지고 계정 자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꿈꾸는 그림 같은 삶,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행복한 가정에서 딸이 잘 크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그레이스가 살아 숨쉬는 힘인데, 이제 다프네 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건 오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된 오텀은 결국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맥멀린 부부의 집에서 광고를 낸 베이비시터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가까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부의 집 안으로 마침내 들어간 오텀은 쭉 지켜보며 흐뭇해하던 이 집의 완벽한 그림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다프네가 올린 사진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과 일상은 다 거짓이었다. 다프네의 남편이자 그레이스의 양아버지인 그레이엄은 바람둥이에 수시로 마약에 손대는 인간이었고, 다프네는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삶을 포장하느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감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다. 이야기는 본 모습을 감춘 두 여자, 오텀과 다프네의 시선을 번갈아 따라가며 아슬아슬한 위장과 서서히 탄로나는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이 알고 보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흔히 등장하는 소재지만 작가의 세밀한 감정 묘사와 흡입력 있는 전개는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저자 소개>

민카 켄트(Minka Kent)는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소설가 윈터 렌쇼(Winter Renshaw)의 필명이다. 『Never』 시리즈, 『Arrogant』 시리즈와 『Vegas Baby』, 『Dark Paradise』 등의 소설을 발표했다. 배우, 요가 강사, 오디오북 나레이터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THE EASY WAY OUT
가제 : 편하게 죽는 법
저자 : Steven Amsterdam
출판사: riverrun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 독일 판권 계약 체결, 호주 출간**

*** "감정적 공감과 다크 코미디 사이에서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고민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 「선데이 타임스」, 닉 레니슨**

*** "죽음이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감동적으로, 동시에 블랙코미디의 느낌으로 전한다. 작가는 최신기술로 이루어지는 죽음의 냉혹함이 변치 않는 연민과 휴머니티로 상쇄되는 미래를 보여준다." – 「가디언」, 수지 페이**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생명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리고 다른 길 없이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고통과 불안 속에 마지막을 기다리는 대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 의식 없는 환자의 안락사 권리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많은 지금,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소설이 있다. '전문적으로'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도와주는' 간호사, 그리고 죽음만이 미래에 놓여있는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 소설은 의외로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가 아닌, 삶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피어나는 웃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린 이야기다.

누구보다 명랑하고 쾌활하고 자유로운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에반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에반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쓰러진 건 일시적인 증상이나 사고가 아닌, 파킨슨 병의 증상이라는 것이다.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었다. 병은 점점 깊어져, 죽음을 맞이할 날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직업이 간호사인 터라 자신만큼 엄마를 잘 돌볼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에반은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다시 들어온다.
소소한 집안일을 다 처리하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선 에반은 아주 독특한 기회를 발견한다. 나라에서 "961 정책", 즉 말기 환자가 죽음을 택할 경우 전문 보조인력이 돕는 일을 합법화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직후에 가까운 병원에서 시범 사업의 하나로 이 일을 맡을 간호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난 것이다. 고민하던 에반은 엄마의 적극적인 응원에 힘입어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돕는 간호사에 지원한다. 병원 측은 전례가 없는, 이 새로운 형태의 안락사 과정이 문제 없이, 적절한 자질을 갖춘 간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반을 비롯한 지원자들의 모든 업무를 영상으로 촬영한다.

남다른 일을 택한 에반의 삶은 어릴 때부터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동차 급발진

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후 엄마는 어린 에반을 데리고 어느 곳에도 오래 정착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보험금으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며 이 도시에서 저 마을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계속 떠돌아다녔다. 게다가 집시 같은 영혼을 가진 에반의 엄마 비비안은 아무 예고도 없이 쪽지 하나 덜렁 남기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 일쑤였다. 언제 돌아올 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며, 에반은 자연스레 혼자 의젓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것에 익숙한 아이로 자랐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새로운 직업도, 엄마에게 찾아온 변화와 모든 것이 변해버린 자신의 일상도 에반은 엄마의 평온한 마지막을 만들어주리라는 일념으로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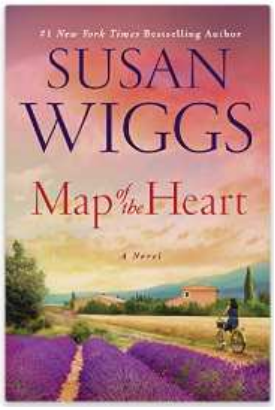
죽음을 앞둔 엄마를 만나기 위해 하나 둘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들과 죽음을 대하는 엄마의 마음가짐, 그리고 병원에서 스스로 택한 환자들과 나누는 대화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유일하게 지켜보는 시간들은 에반에게 죽음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환자들이 전하는 생각과 감정, 인생에 대한 철학은 그 무엇보다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자신의 일에 깊이 빠져든 에반은 법이 정한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며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든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시작된 비비안과 에반의 복잡한 모자 관계와 에반의 굴곡 많은 어린 시절, 그만큼 평탄하지 않은 에반의 연애생활, 에반이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머와 감동, 사랑, 후회, 고통 등 다채로운 감정으로 전하는 풍성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티븐 암스테르담(Steven Amsterdam)은 뉴욕 출신으로 현재 호주 멜버른에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데뷔 소설 『Things We Didn't See Coming』(Harvill Secker, 2011)으로 호주 신문 「더 에이지(The Age)」 '올해의 책'에 선정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프리미어 상(New South Wales Premier Prize)' 결선, 가디언 데뷔소설 상(The Guardian First Book Award) 후보에 올랐다. 두 번째 소설 『What the Family Needed』(Harvill Secker, 2012)로 ALS Gold Medal을 수상하고 호주 총리 문학상(Prime Minister's Literary Award), IMPAC 더블린 문학상(IMPAC Dublin Literary Award)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MAP OF THE HEART
가제 : 마음의 지도
저자 : Susan Wiggs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7년 8월 8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소설



*** 네덜란드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출간될 예정**
***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세밀하게 그릴 줄 아는 최고의 전문가" – 소설가 조디 피콜트**
*** "모든 여성이 꿈꾸고 희망하는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이야기를 쓰는 작가" – 소설가 수전 엘리자베스 필립스**

뜻하지 않은 비극과 마주한 사람은, 그 전까지 아무리 씩씩하고 모험을 좋아했을지언정 삶의 작은 위기에 남들보다 더 쉽게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안전한 길, 평온하고 큰 변화가 없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며 지키려 한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소설 작가이자 50권이 넘는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가 수전 윅스는 바로 그런 삶에 만족하며 사는 여주인공 카밀을 통해 충격과 고통으로 안전한 삶이 뒤흔들리는 순간과 그 변화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진작가로 꽤 높은 명성을 쌓은 카밀 애덤스는 암실에서 사진을 옛 방식대로 인화하는 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화학약품과 절묘한 타이밍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진들, 그리고 그 세밀한 과정을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카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디지털 사진이 주인공이 된 시대라 예전처럼 사진을 인화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놀라운 일거리는 더 늘어났다. 창고나 서랍 깊숙이 둔 채 있는 줄도 몰랐다가 찾아낸 오래된 필름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포착된 곰팡이 가득한 필름들, 그리고 잔혹한 범죄의 흔적과 증거들은 여전히 필름 속에서 카밀의 손길이 닿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인화지에 이미지를 채우는 작업은 카밀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준비한 현상액과 철재 그릇, 세척액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엄격히 직접 통제하며 일하던 어느 날, 카밀이 가장 바라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전화였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 카밀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렸다. 2년 전,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 제이스가 갑작스레 저 세상으로 떠난 후에는 불안과 초조가 카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암실에서 카밀이 느끼는 평온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고는 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고, 카밀이 일일이 손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전화를 걸어온 병원 간호사는 딸아이가 '파도타기 구조훈련' 특강에 참여했다가 파도에 휩쓸렸다는 어이 없는 소식을 전했다. 여름 방학을 앞둔 줄리의 줄기찬 애원에도 불구하고 카밀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은 수업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 서명을 위조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마는 아이들

의 기지는 여전하구나 하는 놀라움과 역시 내 딸이라는 생각이 카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고등학생 시절, 도시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마을 고등학교답게 해마다 치러지는 파도타기 대회와 해상구조대 활동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카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순간에 스릴을 느끼는 기질은 그 이후로도 이어져 소위 '익스트림 스포츠'라 불리는 모든 활동에 카밀은 빠짐없이 몸을 던졌다. 제이스는 그런 카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었지만, 결국 너무 빨리 그녀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카밀은 이제 생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다행히 줄리는 무사했지만, 그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카밀의 마음속에 휘몰아친 불안감은 엄청났다. 제이스의 죽음 이후 사사건건 불안해하는 딸에게, 카밀의 아버지는 한 가지 부탁 겸 제안을 한다. 점점 쇠약해져만 가는 자신을 고향인 프랑스에 데려가 달라는 것이다.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부탁에 카밀은 줄리를 데리고 함께 프랑스로 향한다. 그때만 해도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이 여정이 잔잔한 일상만 바라던 자신을 통째로 뒤흔들 모험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프랑스에 도착한 카밀의 아버지는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돌아온 고향에서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젊은 날의 기억들과 마주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은 딸과 손녀딸을 2차 세계대전이 만든 암울하고 공포스러웠던 그 시절, 가족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로 데려간다. 잃어버린 가족사를 되살리느라 애쓰는 동안, 카밀에게는 또 한 가지 인연이 찾아온다. 미국에서 건너온 잘생긴 역사학자가 제이스의 죽음 이후 두 번 다시 느끼지 못하리라 확신했던, 깊은 감정을 끌어낸 것이다. 친숙하면서도 낯선 프랑스에서 카밀과 가족들은 서서히, 머무르던 시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현재와 제2차 대전 시기 프랑스를 오가며 펼쳐지는 가족의 비밀과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희생,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과 사랑을 깊이 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수전 윅스(Susan Wiggs)는 하버드 출신 소설가로『Lakeshore Chronicles』등 50권이 넘는 소설이「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작품들이 20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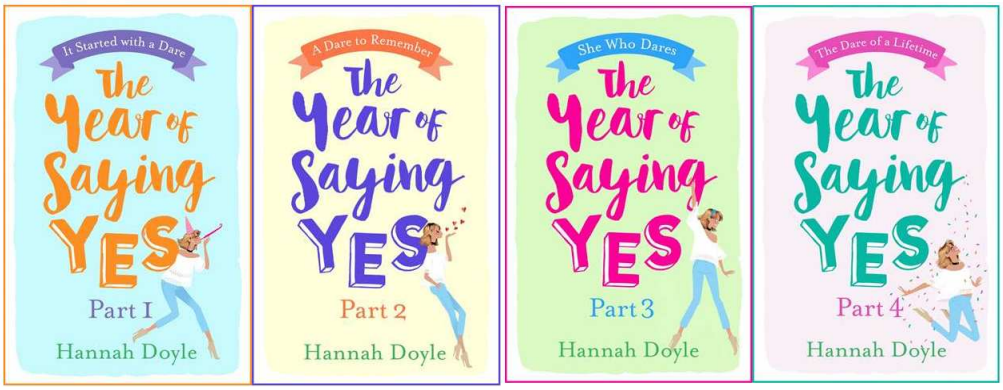
제목 : THE YEAR OF SAYING YES

가제 : 이지의 연애 다이어리

저자 : Hannah Doyle

출판사: Hachette UK Limited

장르 : 소설/ 여성소설



*** 「*What a Girl Wants*」의 린지 켈크*(Lindsey Kelk)*, 「*You Had Me at Hello*」를 쓴 마이리 맥팔레인*(Mhairi McFarlane)*, 「*Just a Girl*」의 루시 앤 홈스*(Lucy- Anne Holmes)*의 느낌이 골고루 배합된 유쾌하고 즐거운 여성 소설**

***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새로운 다짐과 맹세를 거듭하는 주인공의 사랑과 인생 모험기**

또 다시 찾아온 새해,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한 해의 시작점에 남다른 결심을 다지는 사람이 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올해는 다 도전하자!"고 결심한 이지가 그 주인공이다. 바라는 건 많지만 늘 주저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했던 일들을 다 해보기로 다짐한 이지가 1월부터 12월까지 맞닥뜨리는 좌충우돌 난리법석 사랑 이야기가 3개월씩 총 네 편의 시리즈로 완성됐다. 웃음이 가실 새 없이 휘몰아치는 이지의 꾸밈없는 모험담이 펼쳐진다.

***1*부. 시작은 과감하게*(It Started With A Dare)* /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분량*: 83* 페이지,**

달콤한 파이와 케이크, 술과 파티에 취해 흥청망청 보낸 연말도 다 지나가고, 새해가 찾아왔다. 너나 할 것 없이 금주를 선언하고 탄수화물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울 때, 이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새해 목표를 선언한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가장해결이 절실한 문제는 벌써 몇 년째 출구 없는 회전문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짝사랑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려면 외모든 성격이든 뭐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지는 과감히, 어떤 문제든 올 한해 동안은 절대 피하지 않고 다 대면해서 해치우리라 결심한다.

사실 이지의 짝사랑 상대는 의외의 인물이다. 바로 형부의 남동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짐'으로 가득한 조지는 이지가 그토록 바라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 언니가 조지를 쏙 빼 닮은 형부를 만나 결혼에 성공한 건, 어릴 때부터 외모나 두뇌나 성격이 이지보다 훨씬 뛰어나 집에서 크고 작

은 상처를 입었던 이지에게 아주 거대한 한 방을 날린 일이나 다름 없었다. 그렇게 벌써 4년째, 이지는 사돈간의 사랑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일부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로 푹 빠져든 상태다. 대대적으로 변신을 다짐한 이지는 과연 이 답 없는 사랑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2*부. 감히 떠오른 기억*(A Dare To Remember)* / 발행일*: 2017*년 *1*월 *12*일, 분량*: 89* 페이지**

봄이 시작되고, 이지의 연애 생활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사랑이 마침내 시작되려는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두 명의 남자와, 심지어 한 명은 최고의 이상형 조지와! 보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남자에게, 초면임에도 당당히 다가가 번호를 따오질 않나, '누드화' 모델이 되질 않나, 글래스턴베리의 세계적인 공연장, '피라미드 스테이지'에 오를 기회를 얻질 않나, 따뜻한 봄날, 이지에게는 온갖 별난 일들과 사건이 이어진다. 두근대는 사랑의 조짐은 과연 이지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3*부. 과감한 그녀*(She Who Dares)* / 발행일*: 2017*년 *1*월 *26*일, 분량*: 78* 페이지**

역시 사랑은 만만치가 않았다. 뭔가 서로를 향한 감정이 꼬물꼬물 움트던 알렉스는 이지와 친구 네이선의 관계를 완전히 오해한 후부터 아예 연락을 두절해버렸다. 이지가 오해를 풀어주려고 아무리 연락하고 메시지를 남겨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조지가 성큼 다가왔다. 심지어 생일을 맞이한 이지에게 주말을 무조건 함께 보내자는 약속까지 받아낸 조지는 이지를 아름다운 콘월 바닷가로 데려간다. 눈 앞에 펼쳐진 광활한 바다와 조지가 예약해둔 멋진 호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선물까지, 이지는 이제 애매한 관계는 다 정리하고 조지에게 집중하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언니 올리비아와 함께 시작한 죽음의 다이어트와 건강식품 신봉자가 된 '또' 새로워진 이지의 생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사랑도 다이어트도, 이제 정말 해피엔딩이 된 걸까?

***4*부. 일생일대 과감한 도전*(The Dare of A Lifetime)*/ 발행일*: 2017*년 *2*월 *9*일, 분량*: 81*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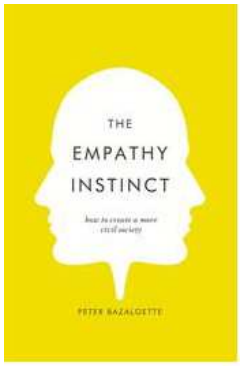
찬바람이 서서히 강해지는 10월, 이지는 언니네 집에서 한동안 동면 모드로 지낸다. 쓰라린 배신의 상처를 다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찬란했던 여름, 조지와의 사랑은 형부가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에 와장창 깨졌다. 조지가 호주 출신인 템플이라는 여자와 이지에게 양다리를 걸쳤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인생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혼자 버티기 힘든 상황인 건 분명했다. 이지는 사무실과 집만 오가며, 친구들이 제안하는 온갖 위로 행사들, 쇼핑이나 레스토랑 투어, 공연 관람을 모두 거절하고 움츠린 채 차가운 가을을 보낸다. 정말 이대로 자책과 원망으로 한 해를 보내야 하나? 이런 때야말로 진정 '새로운' 이지로 거듭날 시점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이지는 아직도 인생에는 마법 같고 놀라운 일들이 무수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저자 소개>

한나 도일(Hannah Doyle)은 런던에서 유명인사를 취재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겸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THE EMPATHY INSTINCT
가제 : 공감 본능
저자 : Peter Bazalgette
출판사: John Murray
발행일: 2017년 1월 2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인간의 타고난 본능, 공감 능력에 관한 과학적 원리와 역사에 남긴 흔적**
***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사회,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감이 꼭 필요한 이유와 역사적 사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 능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며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필수 요소이다. 과학의 혁신적인 발전 특히 1980년대에 등장한 MRI 영상 기술은 이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는 이 능력이 결여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공감의 절대적 필요성을 믿고 극소수의 예외는 있어도 인간 본연의 공통 능력이라 굳게 믿었던 저자는 2014년, 홀로코스트 기념재단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저 예외라 하기엔 너무나 잔혹한 공감 결여의 결과를 두 눈, 두 귀로 확인하고 혼란에 빠졌다고 고백한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증언과 역사적 자료, 현장의 흔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공감이 가능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자명하게 드러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치적, 경제적인 근거로 그 비이성적인 사태를 분석한 자료는 많지만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낀 저자는 MRI 기술로 확인된 뇌의 기능과 환경에 따른 적응 가능성에서 그 빠진 퍼즐을 채울 조각을 찾아 이 책에서 설명한다. 폭발적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인간에게 닥친 갖가지 위기와 끊임없이 위협 받는 공감 능력, 이 특별한 능력을 지켜낼 방도를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난 파괴적 결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까지 공감의 본질은 물론 과거와 미래,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계 곳곳에서 자행된 대량학살의 현장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공감 본능을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 분쟁도 분명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다. 저자는 흥미를 자아내는 다양한 사례와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 언뜻 이해하기 힘든 사태가 빚어진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정된 지구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와 빈곤, 전쟁,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으로 공감 능력이 어떤 위기에 처한 상태인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더불어 진화생물학과 영장류 학자가 입증해온 인간 본연의 협동 능력과 신경과학, 심리학, 유전학에서 밝혀진

뇌와 공감, 연민이라는 감정의 두터운 관계, 그리고 저자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예술과 대중문화에서 드러난 공감 능력의 개발 가능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공감 능력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연구결과와 새로 등장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물론 사회운동가, 예술가,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견해를 골고루 포괄하여 점차 심각해져만 가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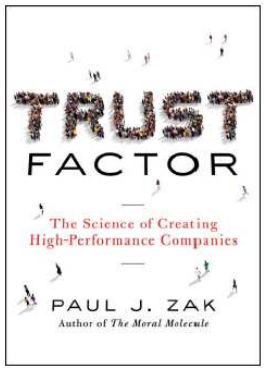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 공감이 없는 사회
2. 공감의 과학적 원리
3. 공감의 특성과 발달
4. 디지털 디스토피아
5. 범죄와 처벌
6. 병폐, 건강과 공감
7. 인종, 종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8. 공감의 기술
9. 공감 헌장

<저자 소개>

피터 바잘게트(Peter Bazalgette)는 덜위치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텔레비전 방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Ready Steady Cook>, <Changing Rooms> 등 영국 TV 역사에 꼽히는 초대형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빅 브라더>를 영국에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영국 예술위원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영국 홀로코스트 기념재단 대표를 지냈다. 저서로는 『Billion Dollar Game』, 『The Food Revolution』 등이 있다. 2011년에는 방송계에 이룩한 업적으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제목 : TRUST FACTOR
가제 : 신뢰가 열쇠다
저자 : Paul Zak
출판사: AMACOM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분량 : 248 페이지
장르 : 경영/과학



*** "모든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보고, 기꺼이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핵심 재료는 바로 '신뢰'라는 사실을 경제학과 신경과학의 탄탄한 사례로 입증한 책"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후보, 조지 애커로프**

*** "신뢰로 이루어진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발전적인 조직으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방대한 자료와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 트레이더 조 *CEO*, 더그 라우치**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우울한 기사가 연일 뉴스에 등장하지만, 정작 회사들은 고르고 고른 인재가 업무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취업만 되면 '뭐든'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패기 있게 외치던 청춘들이 조직에 입성하기만 하면 금세 이직과 퇴사를 고민하는 이 모순된 상황은 대체 왜 일어날까? 산업계에서는 '껍질만' 가지고 출근하는 구성원들의 문제는 이미 수십 년째 큰 화두가 되고 위험 경보를 울려대고 있다. 직원의 업무 참여도가 뚝 떨어지면 개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에도 좋을 것 하나 없다. 조직 문화로 일컬어지는 '회사 분위기'가 아주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회사마다 구성원의 업무 참여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소위 '황금 수갑' 전략이나 문화생활 지원, '노래방 금요일' 같은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별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문화"를 바꾸는 일, 개선하는 일이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 무엇이 열정적인 도전 의식을 갖고 입사한 소중한 직원들을 제발로 나가게 만들까?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뇌의 특별한 기능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기분 좋은 경험은 '나도 상대를 믿어야겠다'는 화답으로 이어진다. 아주 단순한 이 원리는 개인과 개인, 팀, 나아가 조직 전체를 탄탄하게 만들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업무 방식과 회사 분위기를 싹 바꿔놓는 열쇠가 된다. 저자는 "신뢰가 신뢰를 낳는다."는 격언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행복하고 발전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10만 명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9 퍼센트가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비논리적인 평가 대신 올바른 형태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러운 열의를 불러 일으킨다. 실제로 신뢰도가 높은 집단은 생산성이 더 우수한 것은 물론 업무에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쏟아내고, 이직이나

퇴직을 생각하지 않는 비율도 훨씬 높다. 동료와의 협력 수준도 높고, 자연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시달리는 일도 적고, 중요한 것은 회사 수익이 높아지니 급여도 알아서 높아지면서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한층 더 높아진다. 이 바람직한 순환이 조직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줄 전략이 필요하다. 저자는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하여 이미 미국 유수의 업체들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조직문화 개선 전략을 소개한다. 실제 이들 업체에서 이룩한 변화 사례와 실질적인 조언이 풍성하게 제시되는 알찬 경영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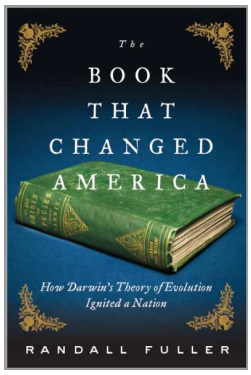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장. 문화의 과학적 해석
2장. 열렬한 박수
3장. 기대
4장. 결과
5장. 전달
6장. 개방성
7장. 관심
8장. 투자
9장. 자연스러움
10장. 즐거움 = 신뢰 X 목적의식
11장. 성과

<저자 소개>

폴 자크(Paul Zak)는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경제·심리·경영학 대학원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경경제학 센터(Center for Neuroeconomics Studies)'의 설립자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주력 연구 분야인 옥시토신과 신뢰의 연관성에 관한 TED 강연이 조회수가 백만 건을 넘어설 만큼 큰 관심을 얻었다. CNN, 굿모닝 아메리카, ABC 월드 뉴스 투나잇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제목 : THE BOOK THAT CHANGED AMERICA
가제 : 미국을 바꿔놓은 책
저자 : Randall Fuller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7년 1월 2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역사



*** "『종의 기원』에 관한 강연, 논의, 식사 자리에서 오간 대화 등을 생생하게 엮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정보를 제공한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에릭 포너**

*** "생동감 있는 인물과 미국의 운명을 균형 있게 묘사하고, 남북전쟁에 과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 퓰리처 상 수상자, 『*MARGARET FULLER: A New American Life*』의 저자 메건 마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오늘날 과학과 종교의 첨예한 갈등에 불을 지핀 불씨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이론은 지금의 갈등을 일으키기에 앞서 미국의 역사에 훨씬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무려 7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뿌리 깊은 미국의 노예제도를 없앤 남북전쟁의 시초가 된 것이다. 남북전쟁은 미국 전체를 산산조각 내고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그 시작은 놀랍게도 대서양을 건너온 책 한 권, 『종의 기원』이었다. 저자는 미국의 정신과 사고를 모조리 뒤흔든 찰스 다윈의 이론에 관한 흥미진진한 역사를 처음 그 책을 읽은 다섯 명의 독자가 남긴 기록과 저서,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생하게 전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남부, 섬터 요새에 남군이 터뜨린 포격 한 발로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미국에 첫 발을 디딘 다윈의 책은 한 시대를 종결시키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 보관 중인 이 최초의 책은 찰스 다윈이 미국의 식물학자 아사 그레이에게 직접 보냈다. 그레이는 읽자마자 다윈의 이론에 공감하고 주석이 줄줄이 달린 그 두툼한 책을 사회 개혁가인 찰스 로링 브레이스에게 건넸다. 진화론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만 한다는 강력한 근거를 얻은 브레이스는 책을 세 사람에게 보여준다. 존 브라운이 내세운 노예 폐지론에 적극 동조했던 프랭클린 샌본, 철학자이자 유명한 소설가 루이자 메이의 부친인 브론손 알콧, 그리고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 대상이었다.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다윈의 이론은 노예가 타고난 운명이라 여겨지던 흑인들이 백인과는 다른, 열등한 존재라는 아이디어를 뒤집어놓았다. 이에 다윈의 책을 맨 처음 완독한, 각기 다른 분야에 서 활동하던 미국의 지성인 다섯 명 모두 노예제 폐지를 외치던 존 브라운의 주장에 적극 동참했다. 노예제도의 본질을 흔든 이 강력한 주장은 해묵은 관습과 생각을 모조리 깨뜨렸고 온 나라가 대대적인 변화라는 큰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다윈의 책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지성인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변화는 나라 전체로 확대

되어 기존의 질서와 체계는 조각이 난 후 다시 새로운 나라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이 파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다양한 자료와 기록으로 생동감 있게 전하는 한편, 노예제 폐지를 이끈 다윈의 자연선택론이 신에 대한 믿음과 미국은 신이 택한 나라라는 국가의 존립 근거에까지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온 그 이후의 변화를 함께 전한다.

19세기 미국 학계에 첫 발을 디디고 새 역사를 만든 단 하나의 아이디어와 당시 사회 각 분야에 남긴 크고 작은 영향을 상세히 밝힌 새로운 역사서다.

<목차>

1부. 기원
1. 대서양을 건너온 책
2. 그레이의 식물학
3. 딱정벌레, 조류, 그리고 이론
4. 입에서 입으로 (이하 생략, 7장까지 구성)
2부. 고투
8. 논쟁의 뼈대
9. 애거시
10. '아무개'의 문제
11. 격한 갈등 (이하 생략, 15장까지 구성)
3부. 적응
16. 조화 속의 부조화
17. 분위기
18. 정원에서의 명상 (이하 생략, 21장까지 구성)
4부. 변화
22. 다운하우스에서
23. 존 브라운의 유령
24. 선험론의 묘지

<저자 소개>

랜들 풀러(Randall Fuller)는 구겐하임 재단과 미국 국립인문재단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현재 털사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저서 『From Battlefields Rising: How the Civil War Transformed American Literature』로 '파이 베타 카파회(Phi Beta Kappa)'가 최우수 문학비평에 수여하는 크리스티안 가우스 상(Christian Gauss Award)을 수상했다. 그 외 『Emerson's Ghosts: Literature, Politics, and the Making of Americanists』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THE ONE- WEEK INSOMNIA CURE
가제: 불면증 일주일 치료법
저자: Jason Ellis
출판사: Vermilion
발행일: 2017년 2월 16일
분량: 224 페이지
장르: 건강

*** 세계에서 유일한 수면과학 교수가 소개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불면증, 수면장애 해결법**
*** 수면 무호흡, 코골이, 하지불안 증상 등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룬 종합 수면 개선 전략**

하루 종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전등을 끄듯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꺼둘 수 있는 잠 덕분이다. 소진된 에너지를 채우고, 스스로 깨닫듯 깨닫지 못하듯 긴장 상태로 보내던 깨어 있는 시간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기억과 정보를 차곡차곡 정돈하여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잠은 '보약'이라는 수식어와 잘 들어 맞는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이 귀중한 충전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깨어 있는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멈춰버리는 무호흡증 때문에 함께 단잠을 청하려는 사람이나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수면과학을 가르치는 세계 유일한 교수이자 오랫동안 수면의 질을 연구해온 저자는 일주일 만에 이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 '꿀' 같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10년 이상 수면장애에 관한 임상적인 치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구 결과와 효과적인 치료법을 종합하여 단시간 수면장애를 해소하면서도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을 접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불면증을 해결하는 열쇠로 활용하고 대인관계 치료와 마음챙김 명상으로 다양한 수면 문제를 교정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방법이 담겨 있다.

책은 총 3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잠이 무엇이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와 정보를 제시한다. 수면 개선을 위해 소개하는 방법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필수 자료들이다. 잠을 자는 시점, 장소,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잠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토대로 수면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주기 생체리듬을 정리해보고 환경의 영향을 상세히 알아본다. 더불어 불면증의 정의와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상태인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또 수면에 대한 사전 계획의 중요성과 '수면 위생'이라는 다소 낯설지만 보약 같은 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책 2부에서는 일주일 해결법에 걸맞게 총 7단계로 나뉜 실천 단계를 하나씩 소개한다. 수면 일정 바꾸기, 자극 관리, 인지적 관리, 주의를 분산시키는 인지적 요소 관리, '탈파국화' 과정, 수면 압력검사와 근육의 점진적 이완, 그리고 교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불면증 재발을 방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이 7단계 실천 방안에는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불면증과 기타 수면 장애에 시달렸던 사람들의 실제 개선 사례를 분석한다. 수면 개선법의 효과를 생생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불면증 외에 다른 병이나 증상을 앓을 가능성은 없는지 자가 점검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장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고 잠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알찬 건강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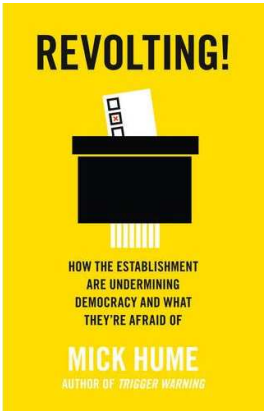
<목차>

서문
이 책을 활용하는 법
1부. 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 수면과 수면제
- 일주일 치료법을 시작하기 전에
2부. 일주일 치료법
- 1일차 (이후 7일차까지 개별 설명)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3부. 사례 분석
- 롭
- 캐시
- 윌리엄
- 샐리 앤
주치의에게 수면 상태를 상담하라
우수한 행동수면의학 전문가를 찾는 방법

<저자 소개>

제이슨 엘리스(Jason Ellis)는 세계에서 유일한 수면과학(Sleep Science) 교수로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의 수면연구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건강심리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며 영국에 자격요건을 인정 받은 소수의 수면장애 치료자 겸 행동 수면의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제목 : REVOLTING
가제 : 뒤집어라
저자 : Mick Hume
출판사: William Collins
발행일: 2017년 2월 23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정치



***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만연한 정치계와 정부 정책을 꼬집고, 민주주의가 나아갈 미래를 진단하는 책**

*** 미국의 트럼프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브렉시트 등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최근 사태와 대중 민주주의의 기원 분석**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접하는 정치체제는 올바른 민주주의일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투표에서 득표수가 부족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나, 첨예한 갈등 끝에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하며 전 세계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례 없는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 무엇이 '진짜' 민주주의인가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발언의 자유를 주장하는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저자는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낯선 형태로 둔갑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너무 과도하면' 국가 전체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주장, 대중의 견해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과 선택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현실을 꼬집으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고수해온 국가들의 정치인이나 사상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기관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국민이 가진 권한을 분리시키려 애쓰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동시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법원이나 유럽의 EU 집행위원회 같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일에 골몰한다.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다 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정부와 정치인들은 '엘리트 집단'을 자처하며 과연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의혹을 던진다. 심지어 민주주의에 '좋은 것도 과하면 안 좋은 법'이라는 원리를 적용하며 조금 덜 할수록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EU 탈퇴가 국민 투표로 결정된 뒤 '다수결의 폭정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이제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이나 하는 생각이 된 것 같은 시대가 된 것이다.

저자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모순된 흐름을 지적하고, 올바른 민주주의와 발언의 자유를 짓누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권력 기관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할수록 안 좋다'는 개념은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한 일이며, 숨이 꺼져가는 민주주의 정치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자유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우익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던 서구 정치권의 좌익 사상가들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과거 정치인들과 달리 쉽사리 주장을 접고 숨어버리는 현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3만권 이상 판매된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저서 『PostCapitalism(국내 번역서: '포스트 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3만 2천권 이상 판매된 테어도르 데일림플의 『What's Left(국내 번역서: '브레이크 없는 문화')』를 이을 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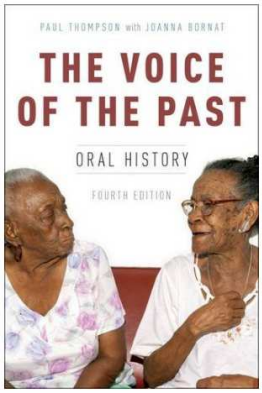
<목차>

저자의 말
1. 브렉시트부터 트럼프까지: '하지만 유권자들 중에 평등권이 더 많이 부여된 사람들이 있다'
2. 민주주의를 벗어나려는 시위
3. 반민주주의의 간략한 역사
4. 친유럽 – 반유럽
5. 대중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몇몇 유명한 주장들
맺음말: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의미

<저자 소개>

믹 흄(Mick Hume)은 저널리스트 겸 작가로, 영국의「Spiked」매거진에 글을 기고해 왔다. 「타임즈」에서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자유지상적 사회주의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 소개되며 10년 동안 주간 칼럼을 썼다. 주로 발언의 자유에 관한 주제를 글로 쓰고 있으며 동일한 주제로 쓴 저서 『Trigger Warning』을 발표했다.

제목 :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가제 : 역사의 음성: 구전 역사
저자 : Paul Thompson, Joanna Bornat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년 5월 1일(제 4판)
분량 : 504 페이지
장르 : 역사학



* **"*1978*년 첫 출간 당시 구전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운 책이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버전 역시 구전 역사의 엄청난 에너지와 지적인 세밀함을 보여주고 현 시대 정치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 호주 모나쉬 대학교 역사학 교수 알리스테어 톰슨**
* **"사회적 정의를 중심에 두고 최근 구전 역사가들이 거론하는 역사 연구의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는 책" – 영국 테스티모니 필름*(Testimony Films)* 대표 마리 라슨**

현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구전 역사'는 사람들이 전하는 기록과 삶의 경험을 듣고, 기록한 결과물로 인류학과 사회학, 민족학은 물론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전략 수립에도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라디오, TV 프로그램, 책, 온라인 자료,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해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역사가가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구전 역사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었다. 커뮤니케이션이 구전 역사의 핵심인 만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구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계기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람마다 더불어 사로 상충되는 기억이나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위해 구전 역사에 담긴 증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40여 년 전에 처음 출간되어 구전 역사의 '역사'와 연구 방법의 교과서로 자리 잡은 이 책은 이와 같은 최근의 화두를 감안하여 새로운 개정판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내용을 정리하고 공동 저자로 나선 조아나 보냇이 7장부터 9장까지 전담하여 기존 버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가했다.

구전 역사는 지나온 시간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당사자는 물론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또 과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를 변화시킬 방향을 모색하는 토대가 된다. 개인과 가족의 소소한 이야기 속에는 과거의 문화에 관한 단서가 숨어 있고, 이는 사적인 경험과 공공의 영역, 과거 세대와 현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된다. 두 저자는 이와 같은 구전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다른 자료에 비해 구술 증거의 신빙성을 두고 거론되는 문제들과 자료 해석 시 사회적 맥락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기억과 구술자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술 역사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과거와 현재를 더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값진 수단으로 구술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배우고 사회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제 4판 서문
1. 역사와 지역사회
2. 역사가와 구전역사
3. 범위를 넓혀서: 다른 문화권
4. 평행선
5. 이론을 토대로 한 구전 역사의 변화
6. 구전역사의 성과
7. 증거
8. 기억과 '나 자신'
9. 역사 연구
10. 인터뷰
11. 인터뷰 이후
12. 해석
부록: 생활사 인터뷰에 대한 세 가지 지침

<저자 소개>

폴 톰슨(Paul Thompson)은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구전 역사가로, 에섹스 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 퇴직했다. 사회과학 연구, 특히 삶의 이야기와 구전 역사를 사회학과 사회역사의 관점에서 연구한 선구적 인물로 일컬어진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현대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The Edwardians and Living the Fishing』. 『Pathways to Social Class and Growing Up in Stepfamilies』, 『Jamaican Hands Across the Atlantic』 등이 있다.

조아나 보냇(Joanna Bornat)은 영국 오픈대학교 교수로 국내외 구전역사 연구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전문 간행물 「Oral History」의 편집자로도 수년째 활동 중이다.